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벼 수확
현장 애로사항 청취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0일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벼 수확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돋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이날 벼 수확을 시작한 고광웅(64)씨는 심포증 벼를 밟 빠르게 도입해 직접 재배하는 실 험정신이 강해 지난 5월 7일 벼 재배면적 13㏊ 중 2㏊ 면적에 조생증인 운두벼, 진옥, 진한을 심어 남보다 이른 수확을 하게 됐으며 수확물 전량을 지역 RPC에 출하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올해 육묘기와 모내기 시기인 4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기상이 양호했고, 이를 바탕으로 태풍 등 벼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재해가 없어 쌀 생산량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첫 벼 수확을 시작으로 모든 농민들이 풍년을 맛보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곧 다가오는 가을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 개방시설
시민 편의 서비스

정읍시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 개방자원 통합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누리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공공자원 개방시설 실태조사와 일제 점비를 통해 문화시설과 주차장, 대여 물품 등 166개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등록을 마쳤다.

특히, 해당 지원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지원 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등록해 이용자의 편의를 돋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백신 접종률 60% 돌파

정읍시, 전국평균 47.3%보다 크게 앞서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

정읍시의 코로나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차 접종 6만5,430명과 2차 접종 3만2,293명이 코로나9 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정읍시 전체인구 10만8,508명 중 1천명은 60.3%

25%는 29.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차 47.3%, 전북 평균 1차 52.6%보다 높다.

시는 지역주민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18개소

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비롯해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돌봄 종사자, 60세 이상 장년층과 고령층 등이 접종됐다. 하반기에는 50대 중장년층과 고3 수험생, 고교 교직원과 교육 종사자 등이 접종을 마쳤다.

이들 접종 대상은 총 8만67명이며, 이 중 1차 접종은 6만5,430명(81.7%), 2차 접종은 3만2,293명(40.3%)이 완료됐다.

오는 26일부터는 만 18세부터 49세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시행하는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FAPAS) 겸증 프로그램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창서 자란 농산물 안전해요”

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능력 국제적 신뢰성·우수성 입증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시행하는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FAPAS) 겸증 프로그램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 첨가물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 정부나 연구소, 민간 분석 기관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겸증받는다.

평가는 참여 기관들의 오차범위(Z-값)을 산출해 절대값(Z-score)이 2이하면 민족, 2~3이면 ‘의심’, 3을 넘으면 ‘불만족’으로 평가된다. 예가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분야에 참가해 평가기관의 상류(lettuce) 농산물 시료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

부안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부안군은 코로나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며 단 가구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거나 군로자 기구원이 유급휴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대진단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화, 내 집과 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정읍=김영식 기자

구 126만 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만 6700원이며 격리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민족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가안전대진단’ 준비 완료

정읍시가 각종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민들의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범국가적 예방 활동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재용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23일부터

5개 분야 66개소로 최근 발생한 저수지 재방 유실, 노후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각 우려 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대진단은 코로나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무사히 안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대진단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화, 내 집과 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